

경주세계엑스포와 산학협력 추진

동국대·경주세계문화엑스포 3월 30일 MOU

불교 문화콘텐츠 개발나서

동국대가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산학협력에 나선다.

동국대(총장 보광)와 경주세계문화엑스포(사무총장 이동우)는 3월 30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경주의 찬란한 불교문화를 영상과 실감미디어 등으로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이에 필요한 인적·물적 교류를 추진한다.

불교학 기반의 인문학적 토대와 가상 현실, 실감미디어 등 첨단 멀티미디어 공학 전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동국대는 불교문화 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동국대 재학생들에게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참여 및 자원봉사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총장 보광 스님은 “경주세계문화엑



동국대와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3월 30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스포와의 협력은 문화융성의 핵심인 문화콘텐츠분야에서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양 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동국대학교 이사장 직무대행 성태 스님, 이동우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무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함께했다.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체벌보다 훈육조건 충족 여부 살펴야”

이호근 교수, <불교연구> 44집 발표 논문서 주장

현재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직접적 체벌은 2011년부터 전면 금지됐다. 다만, 학칙에 따라 간접 체벌은 허용되고 있다. 학생 인권은 강화된 반면, 교권 침해 사례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부작용 때문에 “체벌이 다시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호근 강릉원주대 철학과 교수가 <불교연구> 44집에 발표한 ‘체벌에 대한 불교적 고찰’은 숙고할 부분이 많은 연구이다.

이 교수는 논문에서 체벌의 교육적 가치와 심리적 영향을 분석하고 불교적으로 체벌에 대해 해석했다.

체벌에 대해 이 교수는 “체벌은 대부분 그것을 행하는 교사나 부모의 즉흥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자행된 점이 문제”라면서 “인본주의 교육사상에 비취볼 때, 학생의 자존심 내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해치는 체벌을 정당화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 불교에서는 체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이 교수는 불교적 훈육 수단으로 섭수(攝受)와 절복(折伏)를 들었다.

섭수는 보시·애어·이행·동사의 사섭법으로 중생의 사정을 잘 헤아리고 수

용해 진실한 삶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반면, 절복은 신·구·의 삼업을 조절해 모든 악법·장애를 굴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교수는 “절복은 저항하는 중생을 강압적으로 굴복시키는 방편이라는 점에서 자칫 폭력과 혼동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절복은 서구적 폭력 개

현재 학교에서 직접 체벌 금지

교권 침해 빈번해 “체벌 부활”

체벌 허용여부는 교육계 숙제

불교적 훈육수단 ‘절복과 섭수’

타이름과 질책 모두 사용 가능

체벌 여부보다 지향성 중요해

념과는 다르다. 폭력은 주체와 객체가 대립된 상태에서의 물리적 수단이지만, 절복은 주체적 자각을 통한 중생제도 및 자기실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교적 관점에서 체벌 허용 여부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불가피하게 체벌을 해야 할 경우 체



불교의 훈육 수단은 절복·섭수가 있으며, 선가(禪家)에서도 방과 할이 있다. 절복의 경우 강압적인 부분이 있지만 외적 성격보다는 지향성에 맞춰 해석해야 한다.

벌이 훈육의 방편으로써 여러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체벌 여부보다 훈육 조건이 충족하는지가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라면서 “섭수와 함께 방편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절복은 외적 성격보다는 그 지향성에 초점을 맞춰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불교의 사제관이 현재 학생인권과 교권의 충돌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근거로 봤다.

불교에서는 교사를 화상(和尚) 혹은 아사리(阿蘭梨)도 부른다. 화상 밑에서 배우는 제자는 동주제자, 아사리 밑에서 수학하는 제자는 근주제자라고 한다.

이 교수는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스승과 제자는 흐트러짐없이 경건함을 유지하면서 교육과 학습에 매진하는 것”이라면서 “스승과 제자 관계는 엄격하지만, 자애와 친애의 정으로 충만한 인격적 관계 위에서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극히 민주적인 사제 관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관계는 인내와 사명감을 갖고 상당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엄격한 실천과정을 통해서만 체득할 수 있다”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훈육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佛事 참여 스님들의 진면목 고찰

불교미술사학회, 9일 학술세미나

불사에 참여했던 스님들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세미나가 열린다.

불교미술사학회(회장 지은)는 오는 4월 9일 양산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그간 미진했던 불교조각이나 건축 등 사찰 각종 불사에 참여했던 스님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오세덕 경주대 교수는 ‘19세기 승려장인 민영의 건축기법’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은 ‘안성 봉덕사 목조석가여래좌상과 조각승 금문’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조태

건 불교문화재연구소 연구원은 ‘조각승 승호와 도선사 관음보살좌상’에 대해 고찰한다.

이밖에도 박기현(동국대)씨가 ‘중국 복위 금동연화수보살입상에 대한 연구-정주지역을 중심으로’에 대해, 심인영(홍익대)씨가 ‘원각사지 10층석탑 4층 부조상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선 정명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은아 충남대 강사, 강건우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이희정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등이 참석한다.

신성민 기자

‘불교학리뷰’ 19호 원고모집

금강대 불문연, 4월 15일까지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불교학리뷰’가 원고를 모집한다.

원고 분야는 △논문 △연구사 및 연구현황 △서평 △역주 △번역 △참판기 등으로 폭 넓다. 논문의 경우 인도학, 중국학, 티벳학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불교학 전반을 아우르며, 더불어 문헌학 분야의 논문도 가능하다.

연구사 및 연구현황은 국내외 학술분야에 관한 연구사와 최신의 연구현황 소개를 주제로 한 논문이어야 한다.

논문은 본문과 각주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며, 초과 시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논문 투고를 원하는 석사 이상의 학자는 이메일(criticalreviewforbs@gmail.com)로 4월 1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신성민 기자

금강대 인문한국연구센터

‘지론종 문헌’ 국제 세미나

韓·中·日 전문 연구자 참여

동향 문헌통한 연구 발표

중국 종파불교의 원류로 주목받고 있는 지론종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연구센터는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지론종 문헌과 정영사 해원’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아직은 대중에게 지론종은 인도 유식학자 세친이 <화엄경> ‘십지품’에 대해 주석을 단 <십지경론>을 연구했던 분과다. 510~580년까지 중국 북부에서 융성했던 지론종은 천태·화엄·선·정토 등 중국 종파불교가 성립에 초석이 됐다. 중국불교 사상사의 뿌리와 같은 지론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연구센터는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지론종 문헌과 정영사 해원’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종이 그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현재까지 발견된 문헌이 극히 소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동향 사본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지론종도 주목받게 된다.

이번 세미나는 지론종과 관련한 동향 문헌에 대한 연구들이 대중에게 공개됐으며, 지론종을 대표하는 정영사 해원 스


님에 대한 연구 논문들도 다수 발표됐다. 성카이 중국 청화대 교수는 ‘승현(僧賢)과 지론학파’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출토된 ‘대제고사문대통승현묘명’을 중심으로 승현의 일생과 사상을 정리했다. 승현은 승조의 제자로서 대종지사와 흥성사를 관장했던 지론사(地論師)였다. 그는 선학사상을 계승해 <열반경>의

사범처를 중시했고, <화엄경>과 <법화경>을 제창했다고 성카이 교수는 설명했다.

창루 베이징 중국불학원 강사는 ‘지론사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해탈, 지자, 길장 등이 기록하고 있는 ‘지론사’의 내용 다수가 동향 문헌에서 직접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지론학파는 존재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오타케 스스무 일본 하나조노대 강사의 ‘지론종의 불신론’ △박보람 동국대 다른 마갈리지 초빙교수의 ‘지론종 육상설 고찰’ △이케다 마사노리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의 ‘동향 출토 지론종 교리집성문헌 스타인 613V 제21장 경변오주지번뇌의에 보이는 아비달마 교리에 대해서’ △츠리메이 일본 쓰루미 대학 불교문화연구소 준교수의 ‘속고승전 본문 및 그 특색-권8에 실려 있는 정영사 해원전을 사례로’ 등이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中 종파불교 원류 ‘지론종’ 면모 살피다



대한불교원용종 분한신고 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대한불교원용종 중도 여러분과 기쁨에 항상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불교 원용종은 중단행정의 재정비와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분한 신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 하오니 기간 이내 분한신고를 필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이내에 분한 신고를 못한 경우 대한불교 원용종의 승려로서 자격이 정지 및 말소 되어 대내외적으로 본 종단의 소속 승려로서의 어떤 업무 확인도 해 드릴수 없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속 사.암 주지 및 중도 여러분께서는 총무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 ◆ 기 간 : 2016년 4월 1일 ~ 2016년 4월 30일
- ◆ 대 상 : 대한불교원용종 중도 및 승적 보유자
- ※ 2015년 ~ 2016년 체탈도첩 및 제작자 제외
- ◆ 접수장소 : 대한불교원용종 총무원
- ◆ 제출서류 : 분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등록증, 승려증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원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 704-39 / 전화 02)853-0430~1

대한불교원용종 총무원장 배진호

인생그래프 상담법 안내

프로그램 유형

-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인체도와 그래프를 통하여 과거,현재,미래를 예측해 준다)
- 설문응답을 입력하면 (부와 명예 중 어디가 발달되었나)
- 숫자를 입력하면 (금년엔 재물 관계가 어떨까)
-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나에게 적합한 직업이 숨겨져 있다)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 순간 자료가 나오는 획기적 프로그램

【 학생 용 】

- ▶ 성격의 장, 단점을 정확하게 전달!
- ▶ 뇌의 발달 여부와 자신이 좋아하는 교과목은!
- ▶ 수시 1차, 2차, 정시 진학시 어느 계열과 학과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한가!

1,2,3지망으로 계열, 학과 안내


【 성 인 용 】

- 인체도를 보며 과거,현재,미래에 대해 알려주며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관계를 정확히 전달
- 언제 좋은 일이 생기는지 그래프를 통해 알려준다
- ▶ 나의 미래에 관해 궁금한 분!
- ▶ 성격의 장, 단점을 정확하게 전달!
- ▶ 타고난 기질을 바탕으로 어느 분야로 나아 가는게 좋을까!
- ▶ 부와 명예 중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가!

운세 및 진로 적성 상담

애정, 궁합, 택일, 매매, 이사 및 행운방향, 진학 작명(신생아,개명,상호,아호), 건강, 진로, 직업

➔ 지사 모집 ➔



- 지사 참여 대상 : 종교인, 교육관련종사자, 직업상담사, 심리상담사, 학원운영자, 교육보험프리랜서, 미술치료심리상담

- 별도의 사무실이 없어도 집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무점포, 무자본)
- 유년기 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상담 가능

명리학 및 프로그램 활용법 강의 안내

- ☞ 일 시 : 매주 화, 목요일
- ☞ 시 간 : 오후반 14시 ~ 17시 (3시간)
- ☞ 장 소 : 본 연구소 강의실 (401호)

- 학생에겐 꿈과 희망을 드리며 성인에겐 적성에 맞는 직업을 안내하는 연구소!

방문하시면 자세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진로적성일일 상담소 오픈: 4월 7일(수) 5부 출구 → 200m 직진 흥진빌딩 401호

문의 : H·P 010-5418-5972